

'국가 대전환 비전 함께 만들어가자'

민주도당 선대위, 1차 인선 발표... 상임 선대위원장에 김윤덕·신영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지난 11일 MZ세대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 대책위원회를 출범,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성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0일 전북도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 김수홍 국회의원(익산시),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안호영 국회의원(완

주·진안·무주·장수)이 함께 활동할 것이며, 외부인사로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선거현 전(사)한국에슬인총연합회 전북도지부 회장과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상임고무으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수근 전 전북대학교 총장, 정영달 전 국회의원, 이강래 전 국회의원, 이광철 전 국회의원, 박민수 전 국회의원, 전정희 전 국회의원, 김완주 전 전라북도지사가 함께한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과제와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자문단 상임단장은 이종희 전북대학교 교수를 영입했다.

이외 특보총괄단장에 고영호 전 전북대학교 교수, 선거대책본부 상임총괄 본부장엔 이명연 전북도의원, 공보단장엔 이정린 전북도의원, 현안대응 TF단장엔 성경찬 전북도의원, 종합상황실장엔 유충종 도당 사무처장이 보직을 담당한다.

또한, 총무본부장에 나인권 전북도의원, 정책본부장에 황의탁 전북도의원, 조직본부장에 이병도 전북도의원, 직

능본부장에 문승우 전북도의회이 선임됐다.

이율리 여성본부장엔 김이재 전북도의원, 청년본부장엔 김승일 김제시의원, 공명선거본부장엔 김명지 전북도의원, 부장선거감시단장엔 두세훈 전북도의회를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차 인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인재를 발굴·확충해 나갈 것이며, MZ세대로 구성된 공동선대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 이제명의 약속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김제 성산지구,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선정

이원택 의원 "도시 취약지역 안전 주거환경 개선 최선"

정부가 도시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김제시 성산지구(김제시 교통 199번지 일원)내에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 취약계층 가구에 환경(화재)감시센서와 비상벨



등이 설치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보안등과 가로등도 교체 또는 신설될 예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도심 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신 박준배 김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쇠퇴한 지역상권이나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지방의회 개원 30년 기원 의회가 걸어온 발자취 담아

진안군의회, 의회 30년사 발간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30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진안군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진안군의회 30년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1991년 4월 15일 제1회 진안군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2021년 제8회 진안군의회까지 30여년간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 온 의회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발간계획을 수립한 뒤 자료수집과 검수를 거쳐 이번달 발간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의회 의정활동 30년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사진으로 보는 진안군의회 의정활동 30년', ▲진안군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는 '진안군 주요현황과 역사 속 진안이야기', ▲지방의회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지방의회 개념과 지방의회 발전과정', ▲제1회 임시회부터 제27회 제2차 정례회까지 살펴보는 '회기로 보는 진안군의회 의정활동' 및 부록으로 구성됐다.

김광수 의장은 "군민과 함께 달려온 진안군의회 30년을 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께 신뢰와 사랑받는 진안군의회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의회 30년사는 다음달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도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진안=유태만 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마스크 기증식

3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취약계층 코로나19 극복 위한 마스크 기증식에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P.M.C.M 대표,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이 기증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수·유성엽·김종회·김세웅 전 의원, 민주 복당

전북지역 김광수·김세웅·김종회·유성엽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30일 민주당중앙당사 제1회의실에서 이들 전복 출신 전 의원과 정경배·최경환·김유정·정호준·이용주·민병두·산병렬·유재항 전 의원 등 주요 인사 12명에 대한 입당식이 열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당식 인사말에서 "중간과정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큰 뿌리속에 함께 커 온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중요한 순간에 와 있

다. 미흡하고 부족해서 촛불혁명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지만 이제명 후보를 중심으로 보완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해 4기 민주정부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유성엽 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다"고 말문을 연 뒤 "민약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교체될 경우의 국가적 대립과 혼란을 막기 위해 함께 하게 됐다"고 밝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위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후보가 이제명 후보라고 판단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김광수·김종회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고 대거 탈당한 비분 인사들로 당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창당,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민주평화당과 민생당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세웅 전 의원은 무주군수를 거쳐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2008년 18대 국회의원(전주 덕진)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무주군수에 재도전했으나 낙선했다.

/뉴시스

옥구·계화 배수지 착공 새만금 잼버리 차질없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내 안정적인 용수공급 위해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지역 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옥구·계화 배수지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만금지역 내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는 총 3곳으로, 지난 2018년에 완공한 '오식도 배수지'는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옥구·계화 배수지'는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군산시와 부안군에서 추진 중이다.

옥구·계화 배수지 건설은 그동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배수지 위치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다소 지연됐으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옥구배수지(군산시 옥구면 영명산 일원)는 오는 2024년까지 2만5,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해 새만금 1·2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 등을 지원하게 된다.

새만금 3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계화 배수지(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일원)는 5,000톤 규모로 건설되며, 세계잼버리대회 지원을 위해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희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지역 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 사업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 대선후보 직속 정치개혁특별에 이덕춘 변호사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이덕춘 변호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정치개혁특별로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명의의 '대전환 선거 대책위원회 총괄특별단 정치개혁특별' 임명장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치개혁특별 임명은 전주시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면서 검찰개혁과 국회의원 3선 제한 등 정치개혁 과제 설정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앞으로 이 변호사는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당면 과제인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